



‘아트광주’ 개막 준비 분주

지난달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화랑 관계자들이 광주의 첫 미술장터인 '2010 아트광주'(9월1~5일)의 막바지 개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아트광주에는 국내외 유명 갤러리 53곳이 참여해 2800여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트페어·비엔날레·G20차관회의·亞문화포럼...

광주 9월 한달내내 국제이벤트

1일 국제아트페어 '2010 아트광주(Art Gwangju)'를 시작으로 광주비엔날레 개막(2일), G20 차관회의(4~5일) 등 각종 국제행사가 9월 한달 내내 광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또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4일), 2010 아시아문화포럼(7~9일), 2010 광주 e-스포츠 게임대회(9~12일), ACE Fair 2010(9~12일) 등이 예정돼 있어 하루 걸러 국제 규모의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0 아트광주'는 1일 오후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등 국내외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에서 개막식을 가진 뒤 서구 상무지구 무각사 문화관 앞 마당에서 개막축하 갈라디너를 연다.

만인보를 주제로 한 제8회 비엔날레 개막식은 2일 오후 7시 북구 광주비엔날레관 앞 무대에서, G20 차관회의는 4일 동구 증심사 입구 운림제에서 20개국 재무차관과 IMF 등 국제 금융기관 관계자 200여명

■광주시 9월 주요 행사

행사명칭	기간	장소
2010 아트광주	9월1일~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8회 광주비엔날레	9월3일~11월7일	비엔날레전시장
G20 차관회의	9월4일~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주요 호텔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9월4일	염주종합체육관
2010 아시아문화포럼	9월7일~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0 광주 e-스포츠 게임대회	9월9일~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ACE Fair 2010(국제문화창의산업전)	9월9일~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는다.

2010 아시아문화포럼은 7일부터 3일간 DJ센터에서 열리며 국내외 문화예술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카트라이더와 피파온라인 2개 종목에 대상으로 한 '2010 광주 e-스포츠 게임대회'는 5일 오전 상무지구 PC방 예선전, 9일부터 12일까지 본선이 DJ센터에서, 국내외 문화산업 교류를 위한 'ACE Fair 2010'도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다.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국제도시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맞는다라는 목표 아래 도시이미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송귀근 행정부시장 주재로 G20 차관회의 관련 부서 보고회를 갖고 광주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청결·질서·친절에 힘쓰기로 했다. 또 이 기간 광주비엔날레에 최소 2000여명의 외국인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역·광주공항·광주종합버스터미널·광주송정역·옛 전남도청 부근 등 5곳 관광안내소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9시~밤 9시로 연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하늘만 쳐다보는 F1 경주장

잦은 비로 공사 지연... 트랙 포장공사 시작도 못해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리는 F1 대회가 5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잦은 비로 '하드웨어'인 경주장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 공사 준공이 늦어지고 있어 서다.

전남도에 따르면 F1 대회 운영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는 영암군 삼호읍에 건설중인 F1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공사를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 'F1 머신(machine)'이 달릴 트랙의 아스팔트 표면 포장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틀에 한번 꼴로 내린 잦은 비로 공사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그나마 북상(北上)중인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일까지

4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비로 공사 지연이 우려된다. 시공사인 SK건설측은 "잦은 비로 지난달 작업일수 30일 중 20일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AVO는 급기야 4일부터 치러지는 '서킷런 2010(Circuit RUN 2010)' 행사도 포장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은 채 진행기로 결정했다.

이날 행사가 '서킷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개최 분위기를 띄우는 데 의미가 큰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쪽행사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KAVO측은 애초 8월 28일~31일까지 서킷 표면 포장을 마무리짓고 4일부터 열리는 '서킷런'행사에 국내외 미디어 및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됐던 '개최 위

기설'을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날 예정된 F1 경주차의 '코리아 그랑프리 서킷 최종 주행' 행사도 실제 경주용 서킷이 아닌, 미준공된 도로인 탓에 대회 개최 분위기를 띄우는데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게 됐다.

KAVO측은 그나마 8월 말~9월 초로 예정됐던 서킷 최종 검수 일정을 9월 중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회가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가 개최 열기를 한층 고조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경주장 건설 공사를 비롯, 공사 일정이 지연돼 대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KAVO와 SK건설측은 "8월말까지 경기장 서킷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비가 너무 자주 내려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밤샘 작업을 진행,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7호 태풍 '곤파스' 오늘부터 영향권

6·8호 태풍은 비벼갈 듯

1일 광주·전남 지역은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광주·전남 전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

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산사태·저지대 및 농작물 침수·낙과 등 비바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 예상강수량은 40~100mm.(해안 및 지리산 부근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6호 태풍 '라이언룩'과 30일 발생한 제8호 태풍 '남태운'이 각각 중국 푸저우 지역과 타이완 타이베이로 이동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기아차 20년 파업 고리 끊었다

올 임단협 잠정 합의...내일 찬반투표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31일 타 임오프제(근로시간변제제도)를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극적으로 잠정 합의, 20년동안 지속돼 온 파업의 고리를 끊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지 67일 만이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경기도 광명 8차 본교섭에서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관련기사 8면〉

노사는 최대 쟁점었던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개정노동법을 준수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명이 넘었던 기아차 노조 전임자는 21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임금협상과 관련한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급 7만9000원 인상(효봉층 급분 포함)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 성공 및 생산·판매 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이다.

단체협상의 주요 합의안은 노사의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에 따라 합의서 체결 시점에서 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간 평평히 맞섰던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은 내년 6월로 미뤘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1일 첫 교섭을 시작해 집중 교섭을 벌여 20일 만에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낸 진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국내 완성차 업계 노사가 '무파업'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각 공장별로 진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쌀 초과수요 40만~50만t 정부서 매입

정부는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 모두 정부가 매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남아도는 쌀의 사료용 전환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

난달 31일 낮 과전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생산된 쌀 가운데 초과수요량 392만t 이상 생산된 물량은 10월부터 전량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물량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전량 매입' 방안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작년에는 '평년 작황 이상 물량'만 매입했으나 올해에는 초과수요량 이상 전체를 사들이는 것이어서 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유 장관은 "정부가 매입할 시장 격리 물량은 40만~50만t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약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보문고 입시설명회
"특목고(사사고) 입시 전략"
고입전문가
임성호 (중학교교육기획 이사)
대입전문가
이석록 (패가스터디 센터 소장)
보문고 입시 요강과 학교 운영 방안
- 준비된 자를 위한 시험고 -
보문고등학교
학부팀 062)940-8820

광주경주
전통시장
신선한 농산물
깨끗한 가공식품
편리한 배달서비스

2010년 9월 1일 수요일

저가특가
상품